

“구조조정 실패 땀 일본꼴 난다”

한국 1분기 성장률 0.4%로 일본식 20년 장기불황 우려 증가... ‘창조적 파괴’로 구조조정 이뤄져야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달 31일 LG경제연구원은 ‘일본 기업 구조조정 20년의 교훈’ 보고서를 통해 불황 장기화에 대해 “불황초기에 문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2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진 시점에서 대부분 일본 기업들이 통상적인 경기순환으로 평가했다.

기업들은 버릴 붕괴가 부동산, 건설, 금융산업의 문제라고 평가했으며 일본 제조업은 건실하다고 인식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은 지연됐고, 부실기업은 확대됐다. 이 여파는 금융권으로 이어졌다. 훗카이도 타크스코은행이 파산했고 아이치지정권이 폐업했다.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오랜 시간이 소모됐다. 자연스럽게 신성장 분야에 주력하지 못했고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정부 역시 장기불황 초기에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기업의 상시 구조조정을 유도해 산업의 재생을 도모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늦었다는 평가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성장전략이 제시



전관예우 왜말이나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악탈경제비대행동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양그룹 금융사기 이해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구속, 불법 로비 흥만표 기소 촉구'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전직 검사장 출신 흥만표 변호사가 전관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해경 전 부회장이 구속을 면했다고 주장하며 흥 변호사의 기소 촉구와 이 전 부회장의 구속을 주장했다.

되는 등 추진력이 약했다. 구조조정에 오랜 시간이 소모됐기 때문에 신성장 분야에 주력하지 못했다. 이에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경제 전체 활력 제고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LG경제연구원은 한국 역시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분기 한국의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에 그치면서 일본식 장기저성장애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 주요 산업 경쟁력이 약해지고 과잉설비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회복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성공적 구조조정을 위해 조지프 슈메터의 지적처럼 ‘창조적 파괴’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철수나 매각은 경제적 가치가 남아있을 때 초기에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지평 수석연구원은 “구조조정은 기존 조직이나 관행을 파괴하는 측면이 강하고 인력 문제도 수반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며 “스스로를 파괴하면서 혁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1분기 산업대출 960조... 제조업 상승

부동산·임대업 4조5000억 늘었으나 전분기보다 다소 둔화

올 1분기 산업 대출규모가 96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임대업 관련 대출이 다소 주춤해지긴 했으나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고, 조선업 등 제조업 대출도 상승 전환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1분기 중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대출은 959조원으로 전분기보다 15조7000억원(1.7%)늘었다. 전분기(11조5000억원 증가)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대출이 4조8000억원 늘어, 전분기 9000억원 감소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대출 증가액은 지난 2009~2015년 1분기 중 평균 증가액(8조6000억원)에 비해서는 절반 가량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조선업 등 기타운송장비 대출은 1조7000억원 증가하면서 2009년 1분기(1조8000억원 증가) 이후 1분기 중 7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서비스업 대출은 10조4000억원 늘어 전분기(13조4000억원 증가)에 비해서

는 둔화했지만 높은 증가세가 유지됐다. 부동산 및 임대업 대출이 4조5000억원 상승했기 때문이다. 다만 전분기(5조3000억원 증가)보다는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주춤해진 모습을 보였다.

건설업 대출은 전분기 2조원 감소에서 1분기 1조1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종합건설업이 7000억원 늘었고, 전문직별공사업도 5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제2금융권으로의 이탈 현상도 나타났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산업대출 잔액은 167조원으로 전분기대비 6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08년 3분기(6조8000억원) 이후 최대치다. 예금은행 대출은 8조9000억원 늘어나 전분기(10조2000억원 증가)보다 둔화된 증가세를 나타냈다.

자금용도별로는 운전자금이 전분기(-4조4000억원)보다 7조9000억원 늘었다. 시설자금은 7조8000억원 증가해 전분기(15조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산업대출금 대비 시설자금 비율은 37.8%로 상승했다. /안진수 기자

저축은행 1분기 순익 전년비 73% 급증

2326억원으로 983억 증가... 영업확대에 따라 7분기 연속 흑자

저축은행이 7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저축은행의 당기 순이익은 2326억원으로 1년 전(1349억원)보다 983억원(73%) 증가했다.

비이자순실과 판관비 증가에도 영업확대에 따라 대출금이 2조원 늘며 이 차이인 1658억원 불었다.

경영 정상화에 따라 마케팅 영업을 증대해 전체 대출금이 증가했다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했다.

저축은행권은 2014년 7~9월 흑자로 전환한 이후 7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수익성과 더불어 자산 및 건전성 지표도 개선됐다.

3월말 현재 저축은행권 총자산은 45조7000억원으로 전분기(43.9조원) 대비 1조8000억원(4.2%) 늘었다.

연체율은 0.6%로 3개월 전보다 0.6%포인트 하락했고, 부실채권 비율을 나타내는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9.5%로 0.7%포인트 떨어졌다. /안진수 기자

‘카카오 드라이버’ 대리운전 서비스 돌입

카카오 대리운전 호출앱 ‘카카오 드라이버’가 지난달 3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본료는 1만5000원으로 카카오페이에 미리 등록된 신용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다. 요금은 거리와 시간에 따라 추가 요금이 1000원 단위로 실시간 계산된다. 카카오는 대리운전 요금 계산을 위해 자체 앱 미터기를 도입했다.

카카오는 카카오 드라이버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카카오페이 결제의 일일 부분을 신용카드사로부터 가져간다.

31일 출시 시점에는 대리운전 기사 5만명이 참여한다.

기본료1만5000원에 카카오페이로만 결제

카카오 드라이버 승객용 앱은 구글플레이·앱스토어 등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카카오 계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자동결제를 위한 카드 정보와 운행 차량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앱을 실행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면 예상 이용금액이 나타나며 결제할 카드와 운행할 차량을 확인한 후 호출 버튼을 누르면 기사 배정이 시작된다. 카카오택시에 도입했던 안심 메시지 기능도 제공한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확인한 기사 호출을 수락하면 배정이 완료된다. 이용자는 담당 기사의 사진과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의 전화 번호는 기사에게 일회용 안심번호로 보이며 5분 뒤 도착합니다 등의 기사와 승객 간 메시지 전송도 앱에서 할 수 있다. 대화 내역은 목적지 도착 시점에 모두 삭제된다.

요금과 결제도 앱으로만 이뤄진다. 운행을 시작하면 이용자 앱화면에 실시간 요금이 표시되며 운행을 마치고 나면 등록해둔 카드로 요금

이 자동 결제된다.

한편 카카오 드라이버에 대한 업계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 대리운전 사업자의 고질적인 병폐를 카카오란 강한 경쟁자가 해소했다는 점, 대리운전 기사들의 처우가 양성화되는 계기 등은 바람직하다는 평이다.

하지만 카카오의 O2O 사업 분야는 주로 중소기업들이 진출하던 분야라 우리의 목소리도 크다.

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카카오가 내놓는 서비스들은 기존 시장의 장점만 모아서 자금력으로 들어오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최양희 장관 “신기술 규제 개선 지속 추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이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기술에 대한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지난달 31일 교육 소프트웨어(SW) 개발 전문업체인 위두커뮤 니케이션즈를 방문,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평생교육, 사이버대학, 직업교육 등 교육분야에서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클라우드컴퓨팅 규제개선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

이다. 규제개선으로 금융, 의료, 교육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분야 SW 개발 기업의 현장 체감도, 추가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두커뮤니케이션즈는 교육 분야 클라우드 규제개선에 따른 사업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을 건넰다.

이밖에 김진숙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본부장이 교육분야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미래부는 향후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